

# 전북글로벌특성화고 10곳 최종 선정

## 도교육청,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이리공고·'신기술 융합형' 전북하이텍고 등... 학교 경쟁력 강화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글로벌특성화고 10개 교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전북글로벌특성화고 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신산업·신기술 융합형, 지역 전략산업 연계형, 학교 자체 발전형,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교육형으로 재구조화하고 학교별로 신산업·신기술 테마가 담길 수 있도록 학교명과 학교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추진한 테마, 2유형은 2개 학교가 선정됐다.

전북지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지역전략산업 맞춤형에는 이리공업고(가칭 국제에너지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이리공업고는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분야에

선정되면서 에너지시스템과 미래에너지·에너지안전과로 전면 개편해 지역전략산업에 견인해 나간다.

신산업·신기술 융합형에는 전북하이텍고(가칭 전북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에너지공정과 반도체공정으로 개편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개 학교는 전면개편이 예정된 만큼 신입생 모집을 1년 유예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재교육 기숙사 및 기업현장리얼실습실 구축 기자재 확충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테마유형으로 선정된 8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며, 지역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과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운영된다.

안산여고는 전주지역의 문화관광콘

텐츠를 테마로 관광서비스과와 디지털콘텐츠과를 운영한다.

진안공업고는 군북성화고의 장점을 살려 전기, 기계, 드론 분야 기술부사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명도(가칭)한국기술투사관고등학교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안제일고는(가칭)전북배아커리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카페메이커리과를 통해 제과제빵 명인을 양성한다.

전주공업고는 신산업·신기술분야로 교육과정을 30% 이상 개편하면서 공업계열 국가간접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바치를 가한다.

전북유니텍고는 기존의 화과들에 전기자동차(EV기체과)와 푸드테크(조리테크과) 등의 융합형 교육과정을 접목하여 미래 사회에 빠르게 대응하는 인

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오수고는(가칭)전북팻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를 키워내는 등 명실공히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산고는 교명을 글로벌학산고로 변경하고 국제교류협력 분야를 특성화해 운영하며, 원광보건고는 보건간호과를 1학년 증설해 보건계열 특성화고로 성공적 안착을 추진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글로벌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기에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지역의 산업과 발전을 담당할 인재를 키워 전북지역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영규, 김진순, 김나희, 박병석, 김명철

##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단행

교·원장 승진 22명, 전직·전보 등 총 286명 규모

도교육청,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임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원장 승진 22명, 교·원장 승진 25명, 신규발령 31명 등 총 286명이다.

먼저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체된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군산부설초등학교 김영규 교장, 김재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삼기중학교 강진순 교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전주송빛중학교 김나희 교장이 각각 임용됐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산연구소장은 박영석 전라북도교육청기

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지원부장을,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김명철 장학관을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지역교육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역량있는 인사를 발탁·중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원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룰 전복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2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수학적 사고력 향상

### 진로탐색 기회 마련

### 전북 학생수학동아리

### 진로체험캠프 성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증진을 높이고 학생수학동아리 활동 시너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전북 학생 수학동아리 진로체험 캠프를 지난 11~12일 전주비전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고등학교 수학동아리 학생 100명과 포항 유성여고·수원 화홍고·안성 안법고·인천 인제고 등 타시도 수학동아리 학생연합 15명이 참여해 수학이 기반이 되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전북 수학교육 자료편찬연구회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학교별 수학동아리 활동 사례 공유 △수학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 골든벨 △수학 관련 진로 탐색 교육 및 모둠별 과제탐구 활동 등으로 운영됐다.

신청자들의 학년과 성별을 고려해 6인 1모둠으로 구성해 모둠별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학캠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 동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키우고 수학 관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전북 학생 수학동아리 진로체험 캠프를 지난 11~12일 전주비전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 2024학년도 영어중점학교 운영

### 초·중학교 4곳 선정... 중점·몰입형 등 2가지 구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 영어중점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어중점학교는 실생활 중심 영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중점형과 일반 교과 교사가 원어인영어보조교사와 팀티칭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어몰입형 2가지로 구분된다.

영어중점형 학교는 영어과 교육과정

의 자율적 운영, 말하기·듣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 강화 수업, 실용영어 인증제 및 영어학습 포인트 적립제 운영, 영어사용의날 및 영어전용구역 운영 등을 통해 실생활중심 영어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몰입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과학, 사회, 기말·가정, 체육, 창의적체험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시 한국어 교사와 원어인보조교사가 협력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해 영어중점형으로 최고·중교, 영어몰입형으로 중교 등 최종 4교를 선정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또한 내실화 있는 영어수업과 영어 체험 기회를 확대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 도움 되고과”

### 우석대 차마라씨,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전기차 동차공학부 1년) 학생이 2023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상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고용허가제 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과 사업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스리랑카 국적의 차마라씨는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한국어 능력과 재직 중 지속적인 자기 계발 노력으로 기계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로 낮은 한국문화에 적응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차마라씨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일이 힘들지만, 회사 관계자 분들과 학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난다”라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평생학습지원대상자로 올해 임학한 차마라씨는 현재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주)알트론 전주공장 등에서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 “소중한 기억 간직할게요” | 전북대, 스카우트 대원과 함께

### ‘JBNU 문화 페스티벌’ 개최

“전북대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중한 기억 간직할게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하는 JBNU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는 전북대 기숙사에 머무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대 학생들과 문화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서는 ‘하드캐러’ (연합댄스), ‘던더쿵 (사물놀이)’, ‘노모스 (어쿠스틱 인디음악)’ 등 전북대 학생 동아리가 다양한 공연을 펼쳤고 스카우트 대원들도 참가자랑으로 화답했다. 참가자랑을 통해 대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행사에 앞서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스카우트 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조기 퇴장에 대한 아쉬움이 큰 만큼 대원들이 전북대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라(포르투갈) 스카우트 대원은 “계획대로 일정을 마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라며 “하지만 오늘 행사



전북대학교가 지난 10일 오후 삼성문화회관에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하는 ‘JBNU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그간의 모든 피로를 씻어 주는 느낌이 다. 전북대의 환대에 정말 감사하다”고 행사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전북대는 기숙사에 머무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JBNU 새만금 캠퍼스 지원단을 구성하고 숙박과 식사, 통역, 상시적 의료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대원 모두가 여행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여기서 스카우트 활동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더욱더 풍성하고 흥미로운 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전북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한국장학재단 파란사다리 해외 파견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해외 연수.

## 취약계층 대학생에 해외연수 경험 제공

### 전북대, 파란사다리 해외 파견 프로그램 성료... 베트남 등 방문

전북대학교(양오봉 총장)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파란사다리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대는 올해 이 사업의 호남·제주권역 주관대학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자교 학생 4명과 호남·제주권역 타교생 8명 등을 선발해 여름방학 동안 필리핀 산호세대학, 베트남 국립하노이사범대학, 베트남 현지 기업 및 공공기관 파견을 전액 무료로 제공했다.

선발 학생들은 전원 필리핀 산호세

대학에서 영어 연수와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베트남 국립하노이 사범대학으로 이동해 베트남어 공부 등의 활동을 했다.

특히 이들은 베트남 현지 기업 및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해외 취업에 대한 시각을 넓혔고, 동기 부여 기회를 가졌다.

전북대 조희림 국제처장은 “2023 파란사다리 사업이 전북대와 호남·제주 권역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해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 파란사다리 사업을 확대해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